

우리동네 우리벤처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들어가기

감사한 분들

아름다운재단의 최지은 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임저스틴 님
소소도시의 서선영 님
계단뿌셔클럽의 이대호 님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맹기돈 님
그래픽 디자인을 맡아주신 김보경 님
캠페인 사진 촬영을 맡아주신 임온익 님
캠페인 진행을 도와주신 김예지 님
의자 제작을 도와주신 똑딱단 회원 분들

그리고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장위1동 주민 분들

• 공공 벤치는 어디에, 누구를 위해 설치되는 걸까?

‘공공 벤치는 어디에, 누구를 위해 설치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오른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밀며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류장에 있는 벤치를 향해 느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오셨고, 도착하자마자 몸을 누이듯이 털썩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벤치까지 오는 할머니의 걸음이 무척 위태로워 보였고, 그곳에 벤치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벤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음을 옮기셔야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맞은편에 있는 반대편 차선의 정류장을 보니 그곳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길에서 마주치는 벤치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벤치는 이용자 없이 덩그러니 놓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마저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마주치는 일상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독 주택의 입구 계단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시던 할머니 들도, 항상 같은 자리에 꾸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도 벤치가 있다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벤치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총 몇 개의 공공 벤치가 있을까, 그 벤치들은 언제, 무슨 이유로 그 자리에 설치되었을까, 설치된 벤치는 어떻게 관리되는 걸까 등등. 공공 벤치는 공공을 위한 시설물이니만큼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물꼬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변화의 물꼬

변화의 물꼬는 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에서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탐색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웃과 느슨한 관계를 맺고,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변화의 물꼬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물꼬트기는 관심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문제를 탐색하고 구체적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2단계 향해하기는 물꼬트기에서 찾은 해결 방법을 직접 실행해 보는 단계입니다.

2024년 6월, 변화의 물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저는 1단계 물꼬트기 과정으로 4개월 동안 공공 벤치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시 설계 전문가부터 활동가, 구청 직원, 동네 주민까지 총 18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 수 있었고, 공공 벤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 향해하기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반영하여 장위1동을 대상지로 삼아 벤치 조사와 주민 참여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벤치를 연구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한 과정이 휘발되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단계: 물꼬트기

• 답을 찾기 위해 만난 사람들

공공 벤치를 탐색하기 위해 도시 설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구청 공무원, 동네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도시 설계 전문가로는 서울대학교의 임저스틴 교수님과 소소도시의 서선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활동가로는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맹기돈 처장님, 계단뿌셔클럽의 이대호 대표님, 그리고 한 번 더 소소도시의 서선영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서선영 대표님은 소소도시의 활동이 궁금해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도시 설계 경험이 있으셨던지라 전문가와 활동가의 두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 견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체적 방법론부터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

◦ 도시 설계 전문가

우, 그들이 꿈꾸는 사회의 모습과 비전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은 모두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5개 부서에서 일하는 7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르트 판매원 2명, 반려견 산책자 4명, 집 앞에 벤치를 가져다 놓은 할머니 1명으로, 정식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값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 모두를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인터뷰 내용은 유형별로 요약·정리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편집하여 작성했습니다.

도시 설계 전문가 두 분을 만나 도시 설계의 과정과 예시, 도시 설계 내에서 벤치 및 공공 시설물의 입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대동소이했는데 특히 벤치의 입지에 대해서는 마치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견해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도시 설계자는 도시 구조와 필지 용도를 설정하는 등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이후에 건물의 높이나 재료, 주차장 입구 등 세세한 내역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도 한다.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공공 공간이 포함되지만, 도시 계획의 스케일은 몹시 크기 때문에 도시 공간 내 시설물과 같은 작은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조경 단계에서 시설물이 고려되는 경우는 있으나 벤치의 개수나 위치를 세심히 계획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감도에서 벤치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미래의 사용자나 주변 환경의 맥락을 고려한 계획에 따라 놓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간에 사람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장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길은 도시 설계의 영역지만, 광장이나 정원 같은 공간은 조경에서 다루는 영역이다.

조경을 포함해 도시 계획 단계에서 공공 공간을 다룰 때 중요시하는 것은 동선이다. 그 공간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지, 그곳에 머무는 방법을 구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가로등의 간격을 계획하는 경우는 있어도 벤치의 개수나 위치가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벤치는 주로 민원에 의해 설치되고 철거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



“

오늘날 공공 벤치는 도시 계획과는 거리가 먼 독립적인 시설물로 존재한다. 공공 벤치를 다룰 때 주로 산업디자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인 것 같다. 벤치는 아름다운 형태와 소재가 돋보이는 오브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허다한 데 반해 설치된 공간과의 연결성이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이미 도로에는 너무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독립적 오브제로 존재하는 벤치는 도시 시설물 중에서 설치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다.

”

“

공공 벤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크다고 본다. 도시 계획과 건축에서 다루어지는 코드는 평균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과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도시 계획과 건축처럼 스케일이 큰 작업이 가지는 한계를 보충하는 것이 도시 시설물의 역할이다. 도시 시설물은 건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설치 방법이 간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절하다. 철수가 용이하다는 점도 시설물이 가지는 장점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기후 변화로 도시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시설물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열감을 체크한 후 가장 더운 곳에 쿨링 효과가 있는 쉼터를 설치하거나 대기 상태에 따라 색이 바뀌어 정보를 주는 벤치를 만들 수 있다.

”

◦ 활동가

“

소소도시는 참여형 도시 계획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주로 파클렛*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22년 대전에서 한남대 학생들과 협업하여 2주 동안 진행되었고, 그 후로 2023년 티머니의 사회 공헌 사업으로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에서 파클렛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주민들과 참가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만,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카페 앞 주차 공간을 점유하고 파클렛을 열었을 때, 카페 사장님이 프로젝트에 공감하며 직접 관리할 테니 한남대 건축과 학생들이 만든 벤치를 두고 가라고 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그곳은 원래 주차 공간으로 돌아갔다.

”

*파클렛(Parklet)
주차공간을 사용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운동



티머니 사회 공헌 사업으로 진행된 소소도시의 '이로운도로' 파클렛 프로젝트

“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공공의 협조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 파클렛 프로젝트가 낯설기도 하고, 공공 장소에서 진행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공간이 바뀌지 않는 것은 후속 조치에 대한 공공의 부담도 작용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법에 파클렛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

다양한 지자체와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간 소소도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 설득할 수 있다면 사사로운 문제로 행정과 부딪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소소도시의 활동은 공공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주차 공간이 사람을 위해 쓰일 때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보여주고, 그 결과를 다시 공공에 소개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점령한 도시의 풍경에 의문을 가지고 자동차가 즐비한 동네의 모습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공공 기관이 적극적으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작은 경험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루겠다는 접근법은 계단뿌셔클럽의 이대호 대표님과의 인터뷰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

계단뿌셔클럽은 이동 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해 크루들과 함께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수집한 정보를 기성 플랫폼에 제공하는 방식을 생각했으나 지속적인 관리나 서비스 구성 등의 한계를 느끼고 직접 참가자들을 모아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를 얻기 위해 우리의 활동을 봉사가 아닌 여가로 정의하며 우정을 쌓는 활동으로 소개한다. 봉사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활동을 하며 대형 캠페인보다 한명 한명과 소통하며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변화가 모여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생기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

그러나 계단뿌셔클럽의 첫 번째 목표가 인식 변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인식 변화는 측정도, 실현도 어려운 목표인 데 반해 정보 수집이라는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가 있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동료들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과 꾸준한 운동이 지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계단뿌셔클럽이 직접적으로 도시 공간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동을 위한 접근성이 결국은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란 높고 단단한 성벽 같은 느낌이었는데, 계단뿌셔클럽에서 이 주제를 이토록 활기차고 재미나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참여자 간 연대를 통한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의 맹기돈 처장님도 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민들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도시연대에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도시연대는 90년대부터 도시 운동을 해온 단체이다. 도시연대의 이름에도 들어간 '걷고 싶은 도시'란 무엇인가 많이 고민한다. 도시에서 길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도시의 일상을 행복하게 느끼는 동력이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데에는 당연히 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된다. 지향점은 쉬기 위해 오는 공간이 아니라 어디서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쉼은 계획하지 않아도 늘 필요한 공간인데 도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

버려진 공간이나 잘 쓰이지 않는 공간을 개선해 공원을 만드는 한평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한평공원이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경우가 많다. 공원 자체의 기능도 그렇지만, 함께 만드는 과정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

주민 참여를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어디에 어떤 형태나 크기로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은 앉았다 일어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의자의 높이를 일반 의자보다 조금 높은 60cm로 설정하는 것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벤치를 설치할 때는 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벤치에 모여서 소음이 생길까 봐, 벤치를 디딤돌 삼아 강도가 집에 들어올까 봐 등등 주민들이 벤치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에 설치된 공공 벤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구청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에 올라온 조직도를 바라보며 어느 과에 문의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도시 계획에서 벤치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도시계획과였습니다. 곧이어 전화를 받은 관계자의 '어떤 벤치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듣고 당황했지만, 그 질문이 구청을 통해 얻게 될 정보를 총정리하는 핵심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구청 관계자들과의 여러 차례 대화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벤치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부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하는 벤치에 대해 문의했지만 대부분 벤치 설치 현황이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벤치는 오히려 보행 지정 방해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되레 기존 설치된 벤치를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통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설치하기도 하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많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 벤치 종류 | 담당 부서 | 설치 현황 |
|----------------|-----------------------------------|------------------------------|
| 휴의자 | 구청 건축과 | 90여개 설치, 56개 남음 |
| 공원 내 벤치 | 구청 공원녹지과 | |
| 마을버스 정류장 벤치 | 구청 교통과 | 67개 승차대 (기본적으로 벤치 포함) |
| 시내버스 정류장 벤치 |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정류소 관리팀 | |
| 천변&시장 의자 | 구청 일자리정책과 | |
| 그늘막 | 구청 도시안전과 | 162개 (행안부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

(표: 성북구 벤치별 담당 부서 및 설치 현황)

그나마 휴의자와 그늘막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휴의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도록 전봇대에 설치한 접이식 의자입니다. 성북구는 2018년에 큰 횡단보도 위주로 10개의 휴의자를 시범 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민원이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 확대 설치하여 총 90여 개의 휴의자가 성북구 전역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접이식이라는 구조가 불안정해 보여 어르신들은 사용을 꺼리시고,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여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수리보다 교체 비용이 더 저렴한 데다 파손율이 너무 높아 현재는 점점 철거하는 추세이고, 2024년 9월 문의 당시에 56개의 휴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서 휴의자를 보고 신기해했는데, 구청과 통화 후 다시 찾아가 보니 그 의자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간혹 기둥에 의자가 달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문의했습니다. 2015년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간 그늘막은 그 명성과 위세를 보여주듯 정확한 설치 개수를 알 수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에 발간한 관리·설치 지침 자료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성북구에는 고정형 152개, 스마트형 10개로 총 162개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늘막은 행안부 지침이나 민원에 따라 현장 검토를 마친 후 설치하는데, 현장 검토 시에는 지하 배선도나 통행 방해 여부, 상가 시설 영향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그늘막의 규격과 소재 등 상세한 디자인 기준과 운영·보관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곳에 그늘막 설치
-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
- 도로점용의 최소화 및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 차량의 흐름방향(좌→우)을 반영, 가능하면 보행자의 오른쪽에 설치 고려
- 주변 상가시설물(간판 등)에 장애가 없는 곳
- 기둥 설치 시 점자블록과 60cm 이상 이격하고, 음향신호기와 인접하여 설치는 가급적 금지
- 남향 방향 빌딩이 있어 빌딩 그늘이 생길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제외
- 지하 매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
*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관거 등) 존재 시 매설물의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또는 겹치지 않는 곳으로 설치

(출처: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2021)

• 동네 주민

그러나 구청에서 소개한 고정형, 스마트형 두 종류의 그늘막 디자인에는 모두 벤치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성북구 내에서 힐링의 자라는 이름으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여타 고정형 그늘막과 같은 형태였는데 기둥 하단에 삼각기둥 모양으로 의자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받침대의 두 면에는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2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한 면에는 정릉1동 주민자치회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횡단 보도 앞에 설치된 이 그늘막과 의자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종종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 기관과 주민의 협업을 잘 보여주는 이 의자 덕분에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네를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주민인 만큼 저희 동네 주민들의 벤치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려견 산책자와 요구르트 판매원, 그리고 집 앞에 의자를 꺼내놓고 앉아 계시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 동네를 오가며 인사말과 함께 공공 벤치와 거리에서 휴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반려견 산책자는 따로 설문지를 만들어 궁금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다세대 빌라의 필로티 공간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아 마늘을 다듬는 할머니 한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펜스에 둘러싸인 공동현관 앞 구석에 직접 벤치를 가져다 놓으신 할머니는 답답한 집에서 나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얇아 바람을 쐬기도 하고, 친한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먼지가 나서 실내에서는 하기 어려운 마늘 다듬기와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시간 동안 골목 맞은편에서 다른 할머니가 무슨 일인가 물으시며 벤치에 앉으신 할머니와 정답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펜스와 화단에 둘러싸여 완전히 개방된 공간은 아니지만 할머니 외에도 이곳에 설치된 벤치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 주민, 강아지와 산책을 나서기 전에 옷매무새를 다듬는 주민, 또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하는 점검원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 말고도 저희 동네에서는 골목에 가져다 놓은 의자나 계단에 걸터앉아 계시는 할머니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만 앉아 있기 답답하고 심심한 어르신들은 바람을 쐬기 위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밖에 나와 긴 시간을 앉아 계십니다.

동네의 어르신들 말고 길가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구르트 판매원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판매 카트를 정차하고 요구르트 등 각종 건강식품과 음료를 판매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는 세 분의 판매원이 계시는데, 모두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카트 옆에 언제나 조그만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또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에는 카트에 파라솔을 매달아 그늘을 만들기도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하는 점검원이나 요구르트 판매원처럼 거리와 같은 도시 공간이 주된 일터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 궁금해 판매원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구르트 판매원 한 분의 하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배달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항상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현장 판매를 합니다. 점심 시간 한 시간 이후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배달을 하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다시 같은 장소에서 현장 판매를 합니다. 판매원은 유일하게 실내에 들어가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을 밖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중 거리에 자리를 잡고 판매하는 시간은 5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내내 서서 일할 수 없으니 의자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판매 카드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의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원 세 분 모두 직접 의자를 구해오셨다고 합니다. 그 의자에서 구매자가 없을 때 앉아 있는 것이 그분들의 휴식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자를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판매원들이 현장 판매를 위해 자리를 잡은 곳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동네 주민과 인근 상인들과의 암묵적 합의로 판매처가 된 것처럼 의자 보관에도 같은 종류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판매원이 쉬는 날이나 배달 업무를 보러 자리를 비울 때 의자는 근처 상가 건물 모퉁이에 보관됩니다. 모두가 그 의자가 요구르트 판매원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치우는 일도, 훔쳐 가는 일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요구르트 판매원의 노동 환경을 지역 사회가 보충해 주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면서 정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끈끈히 연결된 판매원은 당연히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사러 온 주민들과 근황을 묻는 것은 예삿일이고, '지난번이랑 똑같이 줘', '포장해 놓으면 이따 오는 길에 가져갈게' 등 웬만큼 축적된 교류가 아니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마실 나온 주민들이 판매원 옆에 앉아 잡담을 나누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요구르트 판매원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들이 동네에서 교류의 장으로 역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덕에 자연스레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동네의 풍경을 한층 다양하고 재미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판매원들의 휴식은 불안정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거리의 심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자 한 골목을 자주 사용하는 주민은 반려견 산책자입니다. 이들은 한곳에 머무르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동네를 돌아다녀야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앉을 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산책하는 주민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지역의 사회적 유대가 약했기 때문에 설문지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설문 후에 드릴 선물로 강아지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산책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겨우 인사 후에 간단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틀 동안 설문을 받은 산책자는 4명뿐이었습니다.

비록 응답자는 적었지만 설문을 통해 산책자들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곳에 가서 휴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쉬기 위해 찾아가는 공간이 아닌 어디서든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도시연대의 목표와 일맥상통했기에 흥미로웠습니다. 또, 산책자들이 주민들이 집 앞에 가져다 놓은 의자를 앉을 수 있는 시설로 인식하는지 궁금해 일부러 추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벤치와 함께 의자라는 단어도 넣었으나 산책자들은 모두 공원이나 산책로 등 행정에서 조성한 공간의 벤치만을 앉을 수 있는 시설로 인식했습니다. 골목 곳곳에 놓인 의자에서 쉴 적은 없느냐고 추가로 물었을 때도 모두가 의자를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골목에 놓인 의자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못하는 것인지, 그 쓰임이나 필요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의자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질문 | 응답자 1 | 응답자 2 | 응답자 3 | 응답자 4 |
|--|---|-------------|--|----------------------------------|
| 1. 응답자 연령 | 7~80대 | 60대 | 3~40대 | 3~40대 |
| 2. 장위동에 거주 하시나요? 얼마나 되셨나요? | 네, 2년 | 네, 10년 | 아니요, 광운초 근처에서 5년 | 아니요, 월곡중 근처에서 3년 |
| 3. 한 번 산책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1시간씩 3번 | 1시간씩 2번 | 1시간씩 1번 | 1시간씩 1번 |
| 4. 산책 경로가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경로를 알려주세요. | 동네 주변을 매번 다른 길로 다님. 오후 3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우이천까지 가서 산책 | 강아지가 이끄는 대로 | 네, 우이천을 지나 도서관 길을 갔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 | 아니요, 장위동까지 오지만 매번 다른 길을 이용 |
| 5. 산책 중간에 쉴 때도 있나요? 휴식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나요? | 우이천과 어린이공원의 벤치 | 공원에서 쉼 | 우이천과 석계역 광장에서 쉼 | 꿈의숲에서 쉼 |
| 6. 산책 중에 길에 설치된 벤치나 의자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보았나요? 사용한 적이 있나요? | 놀이터, 주민센터 앞에서 봄 | 없음 | 우이천과 석계역 광장 | 없음 |

◦ 정리 및 결론

여기까지가 변화의 물꼬 1단계에 해당하는 물꼬트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점도 많았고, 벤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고 깊어졌습니다. 그중 중요한 발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공에서 설치하는 벤치는 설치 위치 및 용도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벤치가 규칙적으로 설치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
- 2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공간에서 벤치는 오히려 방해물로 취급된다. 도시 계획이나 행정에서 벤치는 다른 시설이나 구조물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 3 벤치는 보행자들의 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통행 위주로 만들어진 거리에서 머무름을 만들고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 4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은 의자들이 일상에서 공공 벤치의 부재를 채워주는 동시에 도시 공간에서 앓을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 5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시설물과 그로 인한 교류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 6 벤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2단계: 항해하기

• 우리동네 벤치 조사

물꼬트기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음 단계에서 다루고 싶은 문제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벤치에 대한 무관심과 벤치가 공공의 영역이라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공공 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벤치가 공공이 설치하는 벤치가 아닌 공공을 위한 벤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일상과 동떨어진 채 진행되는 설치 방법의 변화입니다. 공공에서 설치하는 벤치는 설치가 용이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넓고 큰길을 우선시하여 설치됩니다. 그러나 보행 약자가 자주 오가고 주민들이 쉬를 위해 이용하는 장소는 집 앞 골목과 같이 폭이 좁고 길이가 짧지만, 거주 공간과 가깝고 도보로 이용하는 골목길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벤치 설치를 위해서는 일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장위1동 13구역으로 정했습니다. 13구역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2015년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행복누림복합센터, 키움센터와 같은 사회적 기반 시설 설치와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도로 동네의 환경을 바꾸는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직 골목 곳곳에 재생 사업의 흔적이 남아 그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흔적들의 연장선상으로 주민들과 다시 한번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니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공동체 활성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대상지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활동은 지역 내에 설치된 공공 및 민간 벤치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주민들이 내놓은 의자와 벤치의 위치를 기록하고 촬영했습니다. 의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관찰하고, 가능한 경우 설치한 상가 주인이나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위1동 13구역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 벤치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가져다 놓은 의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기록할 의자나 벤치를 선정한 기준은 보행자들의 이용 가능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들이 내놓은 의자 중 가게 문 옆에 설치되어 손님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사를 하며 지역 내에 가파른 언덕이 많기 때문에 보행 약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덕을 오르다 힘들어 화단이나 난간에 앉아 쉬는 노인 분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린 빵집 주인 분도 벤치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 빵집은 언덕이 많은 동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벤치가 꼭 필요하다며 후에 제작한 리플렛도 흔쾌히 매장 내에 비치해 주셨습니다. 또, 한 주택 앞에서는 철제 의자 등받이에 쉼터 의자라고 적힌 하얀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만나 집 주인은 동네의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를 내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 팔기 위해 의자를 수거해가는 분들이 있어 가져가지 못하도록 쉼터 의자라는 표지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 우리동네 우리벤치 캠페인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벤치마킹지도'를 만들고, 이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했습니다. 리플렛은 장위희망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 행복누림센터 내 도서관, 주민센터, 그리고 앞서 말한 빵집을 포함한 지역 내 상가 몇 곳에 배포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조사 결과를 더 많은 주민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 워크숍 형태의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캠페인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1일 일요일에 동방어린이공원에서, 12월 4일 수요일에 버스정류장 옆 틈새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 당일, 현장에 간이 전시대와 벤치 등의 물품으로 전시 공간을 만들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렸습니다. 일상의 풍경에 갑작스레 들 어선 낯선 광경에 많은 주민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리고 대부분의 주민이 캠페인의 의도와 주제에 공감하며 솔직한 의 견을 공유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라며 칭찬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첫날에는 추운 날씨 때문인지 어린이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10여명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에는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인지라 오가는 주민들의 많 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고 리플렛을 가져가거 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걸음을 멈추고 벤치마킹지도를 한참 바라보는 등 25명의 주민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습 니다. 이 중 일부 주민들이 남겨주시고 간 벤치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과 같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지팡이를 잡고 걸으시다
거주 층은 벤치에 쉽게 주저앉은 할머니
한 분을 또 다른 날에는 의자가 없어 불려드
린 분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강위 동은
기어코 벤치에 앉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도전자들이 앉아서 질 수 있는 공간은
찾으시는 모습을 빈번히 볼 수 있겠죠.

이후로 거기에 설치된 공공 벤치에
공감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 벤치는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걸까요? 우리
동네에는 얼마나 많은 공공
벤치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주와 길게 동네를 살펴보았지만
공공 벤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은
의자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모기가 일사불
태하고 의견을 내놓는 열띤 토론도
욕지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의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연천문화의거리)과
지역사회에는 교훈의 소풍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벤치와
의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동네 우리벤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동네 우리벤치

지도 제작

우리 동네 곳곳에 놓여있는
벤치의 위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참여 전시

'벤치마킹지도'를 소개하고,
이름 모으기 투표 등 주민에게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벤치 설치

전시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일로 벤치가 설치되면
좋은 장소를 선정합니다.
실제로 벤치를 설치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 | |
|---------|----------------------|
| 10월~11월 | 동네 벤치 및 의자 조사 |
| 12월 1일 | <우리동네 우리벤치> 참여 전시회 |
| 1월~2월 | 벤치 설치 희망지 모집 및 설치 실행 |

참여 전시회

시간: 11월
요일: 1시~4시
장소: 동방어린이도서관

내용: 우리 동네 곳곳에 놓여있는 벤치의 위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에 벤치 등을 놓아 달아 볼까요?
어디에 벤치 하나를 놓아 달아 볼까요?



13번 마을버스 오르막길에 벤치가 있으면 해요.

계단 입구에 평소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계세요.

아파트 단지 근처 횡단보도 근처.
원래 있던 벤치가 없어져서 다시 생기면 좋겠어요.

주민센터까지 갈 때 너무 먼데, 벤치가 없어요.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 벤치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한마음 유치원 앞에 할머니들이 앉아계세요.

골목 곳곳에 벤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 근처에 등반이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플렛 내) 28번 같은.

마을버스 정류장에 작은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에요. 동방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의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골목 화단에 많이 앉아계세요.

어르신들 쉬시라고 쉼터 의자를 써 붙여 놔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흠쳐 가지 않게 쇠 말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 하나 설치해 주세요.

언덕이 높아서 앉을 곳이 필요해요.

등받이 있는 공원 벤치가 좋아요. 벤치 디자인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공원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요.

정자 아래는 그늘이 있어서 해가 비치는 곳에 앉아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에는 벤치가 없어서 화단이나 아무 데나 앉아요.

친구들이랑 놀 때 쭈그려 앉아서 의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벤치 디자인이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각각이에요.

할머니들이 앉아계실 곳이 없어요.

버스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벤치를 놓기에 위험해요.

고령화 시대라 벤치가 많이 필요해요.



이와 함께 주민들은 벤치마킹지도 위에 벤치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위치에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평소 경험을 되새기며 지도에서 생각하는 장소를 금세 찾는 모습에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이라는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다양한 장소를 언급했지만, 그중 여러 명이 공통으로 벤치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과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내가 앉고 싶은 장소보다는 어르신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위치를 골랐는데, 보행 약자에게 필요한 벤치의 역할과 캠페인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집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며 캠페인 진행자를 데려가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매장 앞에 의자를 놓고 싶는데 차가 많이 지나다녀 놓을 수가 없다며 대신 화분을 가져다 놓았다고 마치 고백하듯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자를 가져다 놓았더니 사람들이 훔쳐 간다며 철제의자는 안된다는 팁을 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조사한 지역 벤치 사진을 제품 카탈로그처럼 보시며 원하는 벤치 디자인을 고르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벤치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시선을 공유하며 오르기 힘든 언덕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버스정류장처럼 머물러야 하는 곳에 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내용을 보고는 주차할 곳도 없는데 벤치를 어디다 놓느냐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 주민도 계셨습니다.

캠페인은 벤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지역 내 벤치와 거리에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해 일상과 밀접히 연결된 벤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되돌아보기 위해 필요한 경험임과 동시에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의자 설치 실험

다음 단계는 실제 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작은 크기와 등받이가 달린 의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 의자에 비해 크기가 작지만 높은 등받이가 달린 의자를 제작했는데, 인지하기 쉽고 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등받이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성북구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목공 등호회 똑딱단의 도움을 받아 폐목재를 재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캠페인에서 많은 주민들이 벤치가 놓였으면 하는 장소로 고른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과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구청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정류장에 벤치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대답이 있었기에 이미 관리 대상에 속하는 마을버스 정류장보다는 언덕길이 설치 실험 대상지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작한 의자를 들고 언덕길을 찾았을 때는 자동차, 주차금지 입간판,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미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자를 놓을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덕이었기에 의자를 안정적으로 놓을 평평한 공간이 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의자를 놓아보며 실험하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의자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설치 장소를 찾아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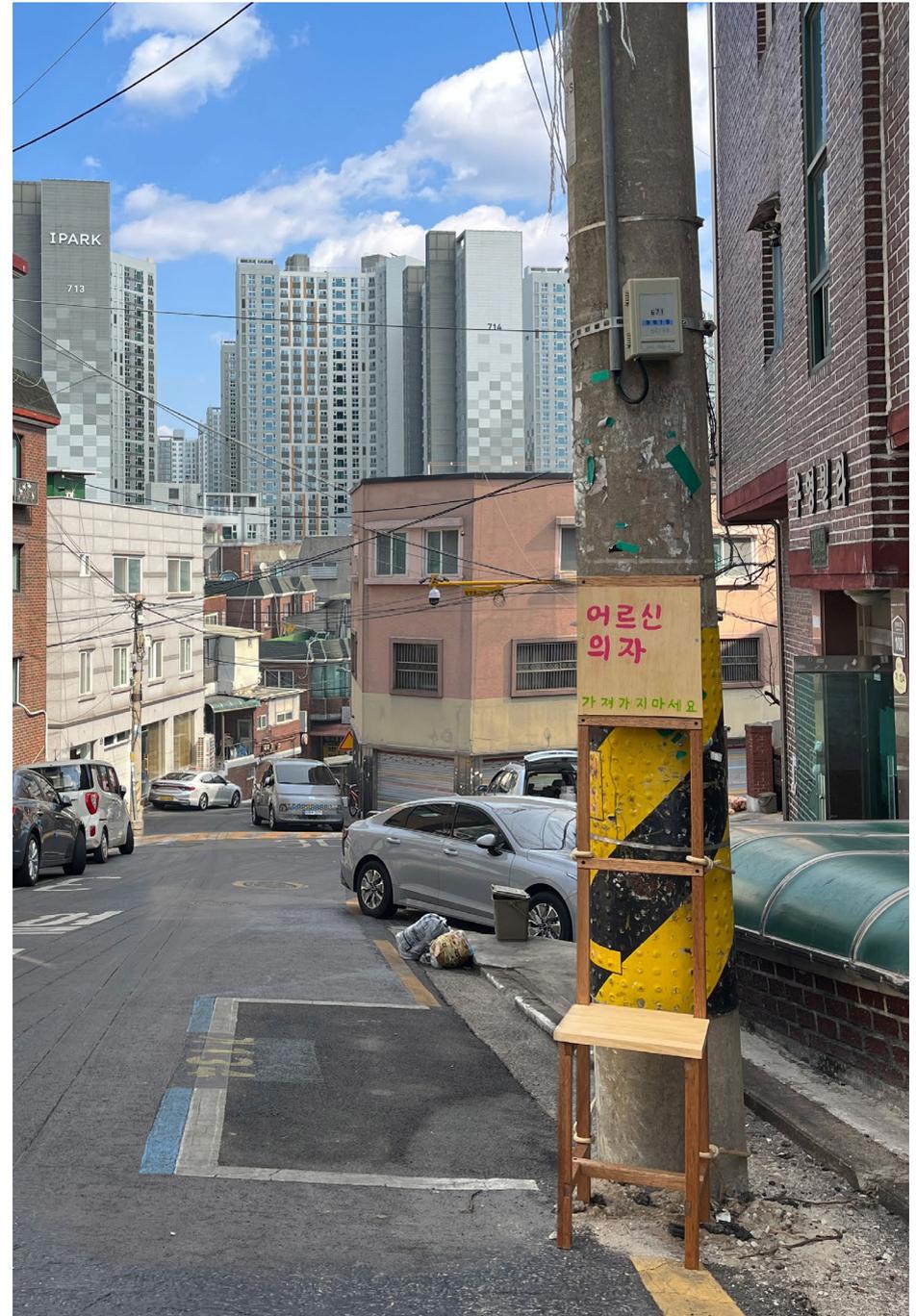
주민들과 함께 찾은 장소는 바로 전봇대 앞입니다.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건물 외벽을 사용하는 것은 거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테니 벤치를 놓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 발견한 공간이 전봇대입니다. 마침 의자의 작은 크기도 전봇대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의자 고정과 도난 방지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끈으로 의자를 전봇대에 묶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곧이어 주민 한 분이 골목 구석에서 버려진 테이블을 주워 오더니 의자를 전봇대에 직접 묶어 시범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한 분씩 의자에 직접 앉아 테스트하며 의자의 크기는 괜찮지만 더 두꺼운 목재를 사용해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거나, 버려지는 식탁이나 의자의 다리를 활용하러거나, '어르신 의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등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연세가 있으셨던 주민들은 언덕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며 의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셨습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진 참여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발견한 개선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봇대에 묶어서 설치하기
- 동일한 크기, 디자인에 두꺼운 목재를 활용하기
- '어르신 의자', '가져가지 마세요' 로 안내판 문구 수정하기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해당 장소에 의자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임시로 설치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철수하려 했던 실험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의견과 응원에 용기를 얻어 게릴라 설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의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테지만, 아무쪼록 언덕에 지친 주민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주며 지역과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기

• 작은 곳에서 만드는 도시

오늘날 도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건장한 성인을 기준으로 계획되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는 어린이, 거동이 어려운 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편의를 배려하고 있나요?

도시 공간의 구조와 이를 보충하는 다양한 시설물은 도시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추구합니다. 공공 벤치도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며 덕분에 우리는 길에서 머물거나 쉬기 필요할 때 벤치에 앉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벤치는 익숙한 시설물이지만, 우리가 공공 벤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공 벤치가 왜 설치되며, 누가 어디에 설치하는지, 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시 공간에 필요한 벤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의되지 않은 채 벤치는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간혹 통행 장애물로 여겨 철수되기까지 합니다.

저 역시 도시 공간을 주제로 작업하면서도 이러한 질문에 천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마주친 할머니 한 분을 통해 <우리동네 우리벤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공공 벤치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공공 벤치의 존재 이유는 보행 약자들의 이동과 주민 간 교류에 있습니다. 전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필요에 대한 문제이고, 후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 벤치는 현재 도시 계획 내에서 받는 처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사람 중심의 도시를 위해 벤치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동네 우리벤치> 프로젝트는 산업디자인의 시각으로 형태와 소재 등 외형에 주목한 공공 벤치 프로젝트와 달리 주민들의 필요에 적합한 벤치를 만들기 위해 벤치가 설치되는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동네에 이미 설치된 벤치를 조사하고, 동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그들과 직접 소통하며 어디에 어떤 벤치를 놓으면 좋을지 탐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어르신 의자'는 형태보다는 그것이 설치되는 장소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언덕길 전봇대에 설치된 '어르신 의자'가 다른 곳에 놓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같은 의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또 다른 결과물은 '벤치마킹지도'입니다. 동네에 놓인 벤치에 주목한 것은 공공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벤치들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이 설치한 벤치가 아닌 공공을 위한 벤치로 공공 벤치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동네의 모든 벤치 정보를 정리한 '벤치마킹지도'를 통해 주민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벤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지도가 지역 내에 널리 배포되어 보행 약자가 길을 나설 때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공공 벤치에 의문을 가졌을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난 사람들 덕분에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순항하며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끈 것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이켜보면 사람을 위한 프로젝트이기에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빼놓고 사람을 위한 결과를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돌아보면 커다란 단위에서 시작해 점차 작은 단위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도 결국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인데, 우리의 도시는 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개인에서부터 거리로, 또 거리에서 동네로, 동네에서 도시로 나아가는 접근법을 상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작은 곳에서 만드는 도시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 곳곳의 작은 곳에서 작은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생겨나 서로를 지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동네 우리벤처

발행처 | 비들(veedl)
발행일 | 2025. 03. 07
집필인 | 추민아
이메일 | veedl.dlab@gmail.com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게재를 금합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

